

지역 매아리

김제 '여름 독서교실'

19일까지 수강생 모집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미래의 주인공은 나'라는 주제로 제99회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여름독서교실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초·중·고등학생 3~6학년생을 대상으로 5일간 독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와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업선택 이론을 중심으로(홀랜드 유형) 나의 감정 찾기, Book Talk, 팝키아트로 책 소개 꾸미기, 창의적 보드게임, 인공지능 기획하기, 로봇과학 체험하기, 요리 등이 마련되어 있다. 더불어 우수한 활동을 보인 학생에게는 김제시립도서관장(1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1명), 교육지원청장(2명), 시립도서관장(2명)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방문 및 전화접수(063-540-4142)로 가능하며 신청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gjl.gim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도시재생으로 구도심 활력

완주군이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 삶의 질 향상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완주군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방향에 맞춰 관내 도시지역 '완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공모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완주군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봉동읍, 용진읍, 상관면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절충을 밝히고 있다.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168억, 2017년 선정)은 터미널기능이 쇠퇴한 구 봉동터미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거점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현재 영입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진행 상황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8월 중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여건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타부처 공모사업과도 연계 추진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용진읍 소규모 도시재생(3억2000만원)과 지난해 선정된 상관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4억)도 주민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재생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의의회 '공익감사청구'

폐기물 조사특위, 보은매립장 폐기물유해물질 유입 조사

"군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완주군 보은매립장 폐기물에 유해물질 유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관련 완주군의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4일 완주군의의회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의원)는 완주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이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지난 6개월 동안 실 틈없이 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은매립장과 그린벨트 폐기물매립장 운용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등의 위법 행위 자행됐다"면서 "위법을 자행한 해당 사업주와는 별개로, 그 동안 단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완주군에 대해 심히 분개하며, 매립장 운영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완주군에 대해 그 책임을 함께 묻고자 한다"며 "완주군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이미 완주군은 2014년 7월 고화처리물이 당초 계획



4일 완주군의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관련해 완주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다 과도하게 복토재로 이용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침출수 및 악취관련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뒤늦은 집행부의 행동에 참모로 안타깝다고 토론했다.

한편 폐기물 조사특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함께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 조치를 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관계부서를 통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하천수와 침출수를 분리·처리하도록 촉구하므로써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있으며, ▲2022년으로 예정돼 있던 비봉면 상수도물 2020년까지 조기 완공하도록 조치했으며 ▲ 소규모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설계가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백산면, 2019년 마을안전보안관 교육 실시

인적안전망 25여명 대상

김제시 백산면(면장 황경)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중심 지역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된 '2019년 백산면 마을안전보안관 교육사업'을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이장 등으로 구성된 백산면 인적안전망 25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4일간) 면사무소 주민자치실에서 실시했다.

이 교육은 사회발전의 기본적 전제조건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을 대비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교육 및 생활안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대안적 접근이 아닌 선제적 대응 및 (사)한국안전교육 강사협회전문위원을 초빙하여 호흡계·순환계 응급처치법을 시작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및 응급처치 종합실습, 전기·가스 안전사용법 교육 등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한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 참석해 모범생으로 선정된 강기순 이장협의회장은 "백산면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어 일부 마을은 의료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마을은 접근성이 어려워 시간을 다루는 응급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이번 교육으로 인적안전망 한 구성원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명감이 생겼을거 같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백산면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행복학습센터

셀프마사지·경락팁교실 운영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셀프마사지&경락팁교실'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문화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개강된 행복학습센터 '셀프마사지&경락팁교실'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간단히 할 수 있는 피부마사지, 경혈점 지압 등을 배우고 직접 해보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9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10시~12시) 총 20차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에게 비타민과 같은 활력소가 되어 기쁘다"며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행복학습센터가 지역주민의 활력소가 되고 지역발전의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월동 행복학습센터는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김제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간병비 등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진단과 치료에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951개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침입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종진단서, 장애인진단서 등이다.

김제시보건소 담당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대상 질환이 대폭 확대되고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희귀·난치성질환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년 전 서양인이 본 조선'을 느낀다

완주군, 신복룡 건국대 교수 강연... 내일 삼례책마을서

백년 전, 서양인의 눈에 조선은 어떤 모습으로 비쳐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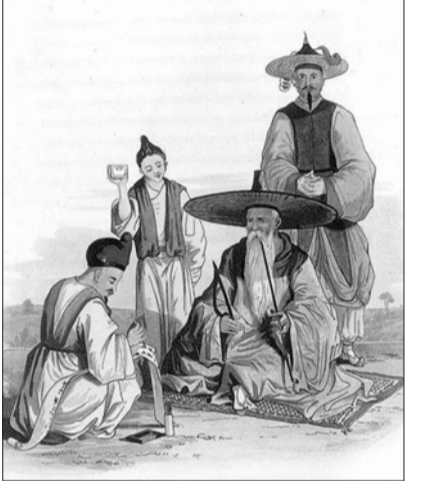
오는 7월 6일 오후 3시, 완주 삼례책마을(이사장 박대현)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완주 삼례책마을에서 '백년 전 서양인이 본 조선'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복룡 명예교수의 강연이 열린다.

1653년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하던 스페르베르흐(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선원 하멜 일행 36명은 제주도에 표착한다. 이후 하멜은 13년간 조선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으로 탈출한다.

1688년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은 조선에서의 생활을 담은 <하멜표류기>를 발표한다. 이 책은 조선을 서양에 본격적으로 알린 최초의 책이 됐다.

1816년에는 영국 배 리라호가 조선 서해안을 탐사 목적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백령도 등을 거쳐 충청도 서천 마량진



앞 바다에 정박해 당시 마량진첩사 조대복을 만나기도 했다.

이때 조대복은 배에 올라 선장 '홀'로부터 술을 대접받고 성서한권을 선물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홀과 군의 팻레오드의 여행기에 채색 동판화와 함께 흥미롭게 실려 있다.

신 교수는 강연에서 이 서양인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책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관련 희귀 도서들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